

말목장과 수의사

이충섭 박사
서라벌동물병원장

한국의 수의학과와 교과과정이 4년에서 6년으로 개편되면서 임상수의사들의 보수교육이 대학에서 이루어지리라 기대했고, 졸업생들의 임상경험을 2년이 연장된 교과과정에서 적어도 1년은 할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했다. 처음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니 각 수의과대학 저마다 교수충원 등으로 특징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해져가고 있어서 임상수의사의 앞날이 밝다고 할 수 있다. 또 매우 다행스러운 것은 수의학과 입학생들이 타과에 비해 우수한 성적의 소유자들이며 지금 교수님들이 수의학과에 입학할 때 보다 월등히 높은 평균성적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을 6년간의 전문인교육을 마친 후에 사회에서 우수전문인으로 대우를 받기위한 터전을 기존의 선배들이 마련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많은 수의학과 입학생들이 개를 주축으로하는 도심지의 동물병원을 위해 수의학과에 입학한 것 같다. 그러나 그 중에는 말과 특수동물을 위한 수의사의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 참 다행스럽다. 대학 6년과정동안 그 꿈이 바뀌는 학생들도 있고 졸업학년에 진로문제 때문에 불안해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한다. 본과 2학년쯤에 각 축종별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도움이 될 것으

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본과 3학년과 4학년에 각각 한 축종을 정하여 특별히 관심있게 다루어볼 수 있는 동아리수준의 기회가 바람직할 듯하다. 4학년 2학기에 말질병학강의가 개설되어있는 학교도 있는데 강의 후에 말수의사의 꿈을 키우는 학생들도 있었다.

미래 말 수의사를 위해 한국마사회의 말전문인들이 여러가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수의학과 재학생들이 방학을 통해 일정기간의 교육 프로그램과 임상수의사들을 교육하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말에서 가장 많은 운동성질환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말의 번식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말이 계절번식동물임을 알아서 1학기에 전북 장수에 위치한 한국마사회 육성목장에 연락하면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말의 자연적인 번식계절이 3월부터 시작되더라도 경주마의 특성상 2월부터 종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3월 개강하기 전에 열흘정도는 체험을 할 수 있다. 특히 한국마사회는, 경마특성상 토요일 일요일에 경마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의 주말이 가장 바쁜 날이다. 이런 이유로 봄학기의 3~5월의 토요일과 일요일을 활용하면 경주마의 번식에 관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기회를 통해 더욱 큰 발전을 기대한다면 선수학습이 중요할텐데 말의 직장검사를 위해서 소의 직장검사 기술을 습득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일부학생들은 외국의 교육기관에 기회를 잡아서 교환학생으로 가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극히 미미한 단계이며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한국마사회에서 말임상에 관심이 있는 임상수의사들을 1년에 1~2차례 간단한 말진료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곤 한다. 이를 소전문수의사들이 말진료를 할 수 있게 교육의 횟수를 늘려서 1년에 4~6회 정도로 개최하여 실습교육을 하게하고 또 임상서적을 번역하여 보급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있으면 한다.

조심스러운 것은 한국의 축산법에 명기되어있는 “자가치료”라는 단어이다. 이 때문에 경험한 여러 가지 부작용 중에 항생제와 호르몬제의 오남용이 그 극단의 예가 될 것이다. 과거의 말 임상수의사가 모자라서, 힘이 미치지 못하여서 목장에서 “자가치료”라는 부분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수의과대학에서 우수한 실력의 임상수의사를 충분히 배출하고 난 후에는 “자가치료”라는 단어를 삭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망아지의 수양성설사의 경우에 오랫동안 항생제를 과용하여 대장내의 정상세균총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만성질환으로 발전되는 경우도 있었다.

수의사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지만 수의사가 되고난 후에 해야 할 일은 경제적인 면에서 풍족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목장을 상대로 하는 수의사들은 특별한 진료비청구와 수급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젖소목장의 경우와 비교해볼 때 말목장의 경우 평균적으로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젖소전문수의사의 경우 목장과 계약진료하는 수의사들은 낙협에서 목장으로 정기적으로 지불되는 우유대금에서 원천공제하는 방법도 있다. 말목장의 경우에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 일년에 한두차례 망아지를 판매하면서 나름대로 큰 수입이 들어올 것 같기는 하지만 이를 맞추어 사료비등의 모든 운영비를 외상으로 하고 있어서 쉽지가 않고, 생산자이면서 마주인 경우 목장주의 소유로 되어있는 경주마가 수득상금을 벌어주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종종 중간결제를 하는 수도 있다. 작년 번식진료비를 올해 완전히 청산하고 난 후 새롭게 진료하려고 기다리다가 진료비중 일부도 떼이고 다른 수의사가 그 목장에 진료를 맡게 되어 진료수도 줄게 되는 것이 말목장에서 수의사의 진료비결제에 있어서 현실이다. 말목장하기 전에 소목장을 한 적이 있는 목장주와 상대하기에는 더욱 그러하다. 소목장을 하던 목장주들이 말목장을 경영하게 되는 예가 있는데 이들은 처음 약 5년정도는 소목장을 관리할 때 접해본 소전문수의사들을 상대하듯이 말 전문수의사를 대하고 있다. 소전문수의사들이 상대로하는 소목장의 수가 말목장의 수보다 훨씬 많고 다양해서 소전문수의사들이 한 목장의 진료비에 생사를 걸고 있지 않다. 그러나

말 전문수의사의 경우 말 목장의 수가 적기 때문에 큰 목장의 진료비가 결제되지 않게 되면 동물병원의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이렇듯 말 전문수의사들이 소진료를 겸하는 것보다, 소전문수의사들이 말진료를 겸하는 것이 수의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쉽고 경영하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항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가 경제성이라는 숫자의 크기에 제한 받지 않고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인식되어질 때, 또 한 번의 “자가치료”라는 용어의 삭제를 시도할 때로 사료되어진다. 또 고급공무원 수의사는 검역의 자주성을 포기하는 시점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늦은 밤에 수의사의 국제적인 위신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차제에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 무엇일까 궁리해 보아야한다.

말목장의 수의사는 번식관리가 주를 이루겠지만 번식계절이 2월부터 6월까지로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7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된다. 목장에서 기르고 있는 망아지의 영양 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야한다. 그리고 당세마의 호흡기와 소화기의 질병, 당세마와 1세마의 지세교정에 대한 상담, 1,2세마의 관리소홀과 사고로 인한 외상에 대한 빠른 조치,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상담 등이 있을 수 있다. 비번식계절의 계획적인 방문과 상담을 통한 예방치료상담을 위한 계약을 통한 진료행위가 근간을 이루어야할 것이다. 이 또한 번식계절의 많은 진료비를 1년 평균으

로 나누어져 목장의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목장과 이해를 같이 할 때 목장과 수의사가 상생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말목장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에도 민감한 목장주들은 철저한 구충과 예방접종이 망아지의 성장 발육에 큰 요소가 됨을 이미 잘 알고 있다. 한국마사회에서는 한국의 말들에게 선역, 말인플루엔자, 일본뇌염 등을 예방접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중에 일본뇌염에 대한 말의 전문성을 무시한 채 돼지에게 접종하는 생독백신을 접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염려스러운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웨스트나일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도한 한국의 특수성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많은 말들을 수입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주마에게 발생되어 경주중단의 사태까지 간적이 있는 이 웨스트나일바이러스질병에 대한 검역이 수동적이며 백신접종에 대해서는 무대책이 최상의 대책으로 알고 있다. 아마 발병하고 나면 대책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생산목장에서는 한국마사회 입사를 위한 위의 3종외에 유산폭풍이라고 불리는 비강폐렴에 대한 백신을 일반적으로 접종하고 있다. 특히 비강폐렴의 경우에는 임신 5개월령과 7개월령 그리고 9개월령에 백신을 함으로 예방을 할 수 있으나 이 백신이 망아지의 호흡기 질병과 연관이 있음을 알고 있는 목장주는 많지 않는 것 같다. 어린 망아지의 해부학적인 이유로 호흡기계의 면역력의 약

화로 인한 보호책이 되는 것이다. 이를 자연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생산목장의 방침에 1~2월의 망아지 생산을 위해 2~3월의 종부두수를 늘리는 것이 망아지의 성장발육과 연관되어 6개월령 망아지 판매가와 1세마 망아지 판매가를 높일 수 있는 방책이다. 이유인 즉 마방에서의 세균증식이 큰 관건이 되는 것이다. 이는 굳이 말에서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축에 연관된 것으로 소와 돼지의 경우에도 계획적인 계절번식을 고려해 봄직하다. 우리나라의 계절변화동향에 비추어보더라도 1~2월의 아침저녁으로 추운날씨 때문에 성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망아지들이 세균과의 전쟁에서 수적으로 열세인 세균들을 이기기 쉬운 법이다.

성공적인 임상수의사들이 진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궤도수정을 이미 착수하여 성공한 경우를 많이 본다. 말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예방상담의 경우 한국의 젓소목장의 발달과정을 예를 들어 보면서 설명을 해보자. 우리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의 젓소목장 수입의 근간을 이루는 우유의 질과 양의 큰 차이를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말목장의 시설이나 운영방법들이 젓소목장의 단계와 같이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단계에 맞게 70년대의 수준이면 80년대의 기준에서 80년대의 수준이면 90년대의 기준에서 상담하고 지도하는 재치가 필요하다. 그 목장의 운영방침에서 몇두의 착유두수가 이익의 극대를 가져올런지, 몇 산차가 가장 적정선인지, 어떤 개체를 도태해야

할 것인지, 어떤 수소의 냉동정액을 활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 수의사는 목장의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각 목장별로 경영진단을 할 수 있어야한다.

결론적으로 요즘의 말목장을 포함한 축산은 사료값의 상승 때문에 조사료의 지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축산이 잘 되어야 수의업이 흥왕해진다. 이를수록 임상수의사들이 특히 소전문수의사들이 인근에 늘어나는 말의 진료경우를 외면하여 자가치료의 정당화를 인정해주기 보다 한국마사회의 자문과 교육을 받아가면서 우수한 후배 말수의사들이 배출되기까지 말진료부분을 지탱하고 있어야한다. 그리고 각 수의학과의 교육프로그램에는 주마가편의 원리를 받아들여서 목장경영과 수의생화학 1, 수의생화학2, 축산학, 사료학, 영양학, 축종별 질병학, 축산경영학, 동물병원관리학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하여 목장들을 상담해 줄 수 있는 우수한 임상수의사를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줄 것을 요청한다. 수의과대학에서 제공하지 않으면 많은 임상수의사들이 경영대학원의 MBA과정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대한수의사회**

